인재 양성 실천… 이 시대 '수달타 장자'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6월 19일 별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91년 행원문화재단 설립
승가 · 재가 장학사업에 주력
경전 독송 등 수행도 철저
"승속 떠나 불교계 큰 어른"



평생을 불교 인재 양성 불사에 힘썼던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사진〉이 6월 19일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주 이사장은 1924년 경기도 개풍군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영특한 아이였지만, 집안이 어려워 상급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일본인 교사가 자신이 학비를 줄 테니 개성상업학교를 다닐 것을 권했지만, 부모님은 "일본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후 주 이사장은 독학으로 학문을 이어갔다.

해방 이후 한국운수주식회사를 거쳐 한일시멘트공업주식회사 창업 초기 경리과장으로 입사해 25년 동안 재직한 주 이사장은 퇴직 이후 아산레미콘 대표이사와 개풍시멘트주식회사 사장 등을 역임하며 대표적인 불자 기업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나눔은 자신을 돕는 것"

주 이사장은 '한국의 수달타 장자'로 불렸다.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 당시 불교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재원을 보시한 수달타 장자와 닮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행원문화재단 설립이다. 주 이사장은 노후를 위해 용인에 마련한 밤 농장을 처분하면서 생긴 재원 2억 원을 흔쾌히 재단을 설립하는 데 내놓았고, 1991년 당시 승가대가 있던 개운사에서 행원문화재단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후 행원문화재단은 역경 · 학술 ·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불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원문화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해왔다. 이를 통해 주 이사장은 각 분야 전문 인력을 독려하고 숨은 불교 인재를 발굴했다.

불교 역경 사업을 이끈 월운 스님, 한국불교 대표 강백인 무비 스님, 원효학대가 은정희 서울교대 명예교수, 음악으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선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강형진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 등 수상자들의 현재 면모를 봐도 행원문화상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주 이사장은 평소 "나누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위해 저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던 것은 주위 사람들이 도움이 컸기 때문이며, 이를 회향하는 것이 불자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 주 이사장은 생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술회했다.

"나에게 도움 준 사람들에게 신세진 것을 갚는 방법은 나 역시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방법을 생각하다보니 장학금을 보시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눔을 위한 재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을 증자시킨 것도 더 나누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2억 원으로 시작한 재단은 증자를 거듭해 2014년 기본재산이 25억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근검절약' 신조인 신실한 불자

행원문화재단의 이름인 '행원(行願)'은 주 이사장의 법명이다. 주 이사장은 1972년 부처님오신날 독산동 심원사에서 관응 스님에게 '행원'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불심이 돈독했던 불자였던 그는 꾸준히 독경 수행을 했다.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저녁에도 〈천수경〉과 〈반야심경〉 독송으로 일과를 마무리했다.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누구보다 근검절약의 삶을 살았다. 흔한 생일은 고사하고 회갑과 칠순잔치도 하지 않았다. 대신 관련 축하 비용을 승가원, 연꽃마을, 보육원, 양로원 등에 보냈다.

주 이사장과 인연이 깊은 주위 인사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행원문화상 심사위원인 최정희 前 본지 편집이사는 "근검절약 몸에 밴 분이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셨다"며 "행원문화상 이외에도 중앙승가대, 종립학교 등에도 꾸준히 장학금을 희사했다. 불교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행원문화재단 창립 당시부터 인연을 맺은 서울 성북동 전등사 주지 동명 스님은 "승속을 떠나 불교계의 훌륭한 어른"이라고 상찬하며 "개인적으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사님"이라고 세속의 연이 다함을 안타까워했다.

동명 스님은 "양말을 기울 정도로 근검절약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재가자 혼자 마지막까지 불교 장학사업을 이끈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마지막에도 가족에게 '아무 흔적 남기지 말라. 가족끼리 장례 지내라'고 유언했다. 그래서 불교계에도 부고조차 돌리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참불자였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종조 가르침, 지혜의 빛 삼아 정진"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다례 조계사서 봉행

조계종이 종조인 도의국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토세계 구현에 매진할 것을 서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6월 1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원로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설정 스님, 종의회의장 원행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은 6월 15일 서울 조계사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를 봉행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이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후손들이 도의국사께서 보이신 전등의 무량공덕에 보답하는 길은 국사의 정수를 알아 각자의 마음광명을 밝히는 것"이라며 "국사님의 정토염원이 사바세계에 가득해 온 국민의 평안과 한반도 평화통일이 속성취하여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추모사에서 "뭇 중생의 고통을 보듬고 정토세계를 구현하는 지름길은 수행하는 종단으로 바로 서는 것임을 잘 알고 실천하겠다. 청정한 승단을 이루고 화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종문을 여신 국사의 공덕에 답하는 것임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포교사 옷, 전법 편하게 바뀐다

포교사단 단복 현대화 추진… 21일 TF 첫 회의

조계종 포교사단이 한복 양식인 현행 포교사단 단복의 개편을 추진한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윤기중)은 6월 21일 서울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열린 제3차 임원회의에서 '포교사단 단복개선 TF'(팀장 장용숙)를 구성했다. 단복개선 TF는 임원회의 직후 첫 회의를 열고, 기존 포교사단 단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부 개선 및 전면 개편의 의견을 수렴했다.

포교사단 단복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근 20년간 재가자 전법 포교의 상징으로 자리했다. 감색 색상으로 통일된 단복을 입은 포교사들은 불자들의 일치단결된 힘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일선 포교사들은 그동안 단복에 대한 불편함을 감내해야 했다. 전통한복 양식으로 단복 하의는 끈으로 묶어야 해 여성포교사들이 입거나 벗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여름단복 상의의 경우 앞트임이 없어 바람이 통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날 단복개선 TF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단복 하의에 고무줄 밴드를 도입하고 여름 상의 앞트임을 더한 개량 단복을 선보였다. 하지만 TF 내에서 "젊은 사람들의 유입을 고려해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TF내 의상 전문가를 충원해 개선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최근 포교 행정시스템 전산화에 이어 단복 현대화를 통해 전법 포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포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6월의 노래와 염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일심칭명 '아미타불' 합시다.

우리 국민에게는 6월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제일 먼저 부르는 노래는 6월 6일에 부르는 '현충일 노래'입니다.

"겨레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니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조국의 산하여 용사를 잠재우소서. 충혼은 영원히 겨레 가슴에 임들은 불멸하는 민족혼의 상징, 날이 갈수록 아~그 충성 새로워라"

조지훈 작사 · 임원식 작곡의 이 노랫말을 6월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음미합시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젊은 넋들에



호국충혼-영가천도 그림 · 조향숙

호국충혼 영가천도는
조국수호 정신 이어 받아
평화의 길을 여는 발원

게 우리는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있는지, 그 꽃다운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제대로 기리고 추모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6월 25일에는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로 이어지는 '6.25의 노래'를 부릅니다.

68년 전 그 날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평화,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의식 노래는 아니지만 6월의 애창가곡이 있습니다. 무명용사에게 헌정하는 '비목(碑木)'입니다.

6월 15일은 제1연평해전일이며, 6월 29일은 6명의 해군이 전사한 제2연평해전일입니다.

육군 17사단 군악대는 인천시립합창단 정기 연주회에서 군가 '전우야 잘자라'를 연주했습니다. 우리의 피맺힌 아픔과 민족의 비극이 담긴 6월의 노래는 기도이며 염불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는 호국영령들이 목숨바쳐 지킨 희생의 댓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추모와 감사의 빛이 바랠까 염려됩니다.

우리 삼천사에서는 하안거 결제일부터 우란분절인 백중까지 호국충혼과 선망부모 유주무주 고혼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가천도 100일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부분 절과 사암연합회에서는 호국영령 천도 기도를 합니다.

산승이 소임을 맡고 있는 서울 은평구 사원연합회는 매년 6월에 나라와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 충혼 대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제29회였는데 추모법회와 함께 상이 군경 가족과 모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분들을 구청장이 표창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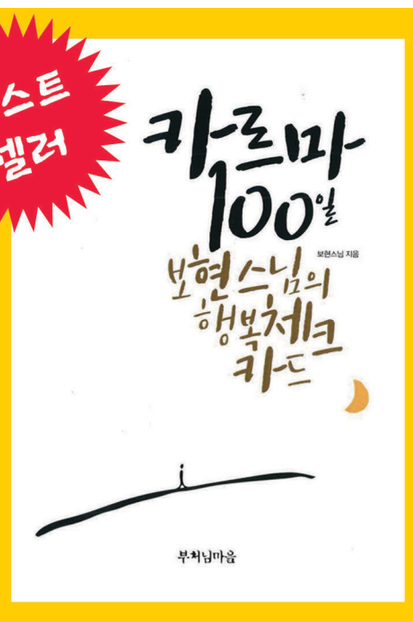
*영가는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피지도 못한 젊은 영가들의 집착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호국영령들이 맺힌 한을 풀고 밝은 곳, 즉 극락에서 이고득락하도록 천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나라를 위해 산화(散華)한 용사들에게 감사하고 보은하는 도리입니다. 충혼들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고 또 축원하며 조국수호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를 가꾸고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발원입니다.

"삼혼(三魂)은 한(恨)이 되어 아득한 어둠속에 헤매이며 칠백(七魄) 또한 갈 길을 잃었도다. 호국 충혼 영가들이시여 일심칭명 '아미타불' 하시고 극락왕생 하소서. 남북이 화합하는 평화의 빛으로 다시 오소서.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추천도서!
좋은사람! 좋은책!

[타래] 베스트셀러 저자!
이 시대의 최고 힐링멘토로 우리곁에 돌아온,
보현스님의 신간출시!
[카르마 100일 보현스님의 행복체크카드]

YouTube 부처님마을 [보현스님]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과거 인기가수 출신. 80년대 아이유로 불릴만큼 각종 CF는 물론 KBS드라마 [사모곡] OST '사모곡'과 '설마' 등을 불렀고, 가수 이선희와 함께 KBS 신인가수상 후보까지 오르면서 스타반열에 올랐다.

○최근 KBS2 [여유만만]과 TV조선 [대찬인생], KBS [아침마당], TV조선 [별별톡쇼], KBS2 [속보이는TV 人사이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등에 출연하면서 다시 한 번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현재 '보현스님의 카르마 100일' 강의로 유튜브(You Tube) 구독자 수 5,000을 돌파하고 있다.

전국서점 절찬판매

문의전화 02.379.2010